

가족변화에 따른 가족갈등양상과 정책과제

Family Change: Its Conflictual Aspects and Policy Implications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가족가치관의 약화, 급속한 가족변화로 자녀양육 및 가족부양 공백 등 가족복지기능이 약화되고 개인주의 팽배와 전통적 성역할 혼재, 세대 간 소통단절 등으로 가족갈등이 증가하는 한편, 노부모 부양과 상속문제 등으로 형제자매 간, 고부와 장서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일·가정 양립, 성인자녀의 만혼화에 따른 부모의존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갈등이 증가 추세이다. 가족갈등은 가족해체로 이어지고 이는 많은 사회적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므로 가족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가족건강성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환경을 조성하고, 세대 간 민주적·합리적인 관계를 정립하는 한편, 응집력 및 탄력도 제고와 가족문화 및 인식증진을 위해 정책적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우리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행으로 개인주의화, 고령화에 따른 노인증가, 만혼 현상, 이혼율 증대, 저출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가족구조와 기능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비율은 2014년에 12.7%로 고령사회에 접근하고 있으며, 초혼연령은 2000년에 남성 29.3세, 여성 26.5세에서 2014년에는 각각 32.42세, 29.81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조이혼율은 2000년에 2.5건에서 2014년에는 2.3건으로 지속적으로 일정건수가 발생하였

으며, 동 기간 출산수준은 1.47명에서 1.2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¹⁾. 이와 같은 인구구조 및 동태적 변화로 가족구조는 빠르게 핵가족화·소가족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양육 및 가족돌봄 기능 공백 등 가족복지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 가구주의 고령화·여성화, 맞벌이 가족, 한부모가족 등 신사회 위험에 노출된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주의 중위연령은 2000년 44.5세에서 2010년에는 49.0세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며, 성별분포는 2000년에 남성 81.5%, 여성 18.5%에서 2010년에는 각각 74.1%와 25.9%로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높아지

1) 통계청(2000). 인구동향조사; 통계청(2012). 인구동향조사.

는 경향을 보였다²⁾. 그리고 맞벌이 가족은 2000년 35.4%에서 2014년 42.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³⁾, 한부모가족도 2000년 9.4%에서 2010년 1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가구구조 축소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가족부양 및 돌봄 등 가족기능의 공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개인주의 팽배와 전통적 성역할 혼재, 그리고 세대 간의 소통 단절 등으로 부부 및 세대 간의 가족갈등의 심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가족해체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족기능의 약화와 가족갈등의 증가는 이혼·별거 및 위기 청소년 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부담이 발생하므로 가족갈등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본고는 가족갈등의 개념 및 유형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가족갈등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원인을 살펴보는 한편,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자료⁴⁾를 활용하여 가족갈등 발생수준과 가족갈등 유형, 가족갈등 대처방식 및 가족갈등으로 인한 변화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코자 한다.

2. 가족갈등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

가족갈등에 대해 학자들 간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갈등은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 표현하는 분노, 공격성, 의견충돌⁵⁾, 가족 내 권위와 경제적 자원의 분배과정에서 생기는 가족구성원들 간의 마찰로써 갈등 당사자들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⁶⁾,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심리적, 행동적, 인지적 불화로 인해 관계에 문제가 발생한 상태⁷⁾ 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또한 가족갈등을 가족 돌봄과 관련하여 내린 정의도 있다. Semlpe⁸⁾은 가족 갈등을 돌봄 제공자가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돌봄 제공자와 돌봄을 받는 자의 밖에 있는 가족구성원들과의 다툼 또는 극단적인 적개심이라고 정의하였다. 돌봄은 가족관계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는 가족을 사정(assessment)할 때는 가족 중심적 관점에서 가족갈등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⁹⁾. 이외에도 가족 갈등을 가족 관계상의 갈등과 가족 기능상의 갈등으로 나누어 접근한 연구도 있다. 가족 '관계'

2) 통계청(2000). 인구 및 주택센서스보고서;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3) 통계청(2000). 사회조사; 통계청(2014). 사회조사.

4)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8.21~9.1일까지 전화조사로 실시되었고, 조사대상은 전국민 만 19세~69세 이하의 남녀임.

5) Moos, R. H., and Moss, B. S.(1994). *Family environment scale manual(3rd)*,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es.

6) 김양희(1993). 한국 가족의 갈등 연구. 중앙대학교출판부; 전요섭·성금옥(2008). 기독교가정의 가족갈등 처리방식이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복음과 실천신학, 15, pp.105-131.

7) 노성덕 외(2010). 소년원 또래상담 프로그램. 학지사.

8) Semple, S. J.(1992). *Conflict in Alzheimer's caregiving families: Its dimensions and consequence*. *The Gerontologist*.

9) Mary, j. q., and Susan, K. T.(1997). *Elder Abuse and Neglect: Causes, Diagnosi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Springer Publishing Company; Lynn Eters, Debbie Goodall, Barbara E. Harrison(2008). Caregiver burden among dementia patient caregiv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Nurse Practitioners*, 20(8), pp. 423~428.

상의 갈등이란 가족 내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구가 상대방과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과정¹⁰⁾이며, 가족 '기능' 상의 갈등이란 가족구성원이 가족 돌봄이나 경제적 부양과 같이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욕구, 목표, 역할이 주위 환경과 상충할 때 발생하는 갈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족은 서로 다른 욕구, 기대, 목표를 가진 구성원이 일상생활과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와 미래를 추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욕구, 기대, 목표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회집단이다. 따라서 가족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자연스럽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최근 가족변화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갈등현상은 세대 간 가치와 문화차이로 인한 소통단절에서 오는 관계 갈등과 가족부양 및 돌봄 등 가족기능 공백에서 오는 기능상의 갈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를 근거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족갈등 현상에 초점을 두어 가족갈등을 크게 가족 관계상의 갈등과 가족 기능상의 갈등으로 분류코자 한다. 가족관계 상의 갈등에는 (1) 부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인 '부부 갈등', (2)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자녀 등 윗세대와 아랫세대 사이의 갈등인 '가족 내 세대 갈등', (3) 형제와 자매,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 간의 갈등인 '형제자매 갈등' 등으로 분류코자 한다. 가족기능상의 갈등에는 (1)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반대로 부모가 성인자녀를 돌보는 기능과 관련된 갈등인 '부모-성인자녀 부양 갈등', (2) 가족에 대한 경제적 부양과 자녀 돌봄 등 가족 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등을 포함

코자 한다.

3. 가족갈등의 환경 및 원인

가족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족구조의 변화인 소가족 및 핵가족화 현상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가구주의 구성변화로 여성 및 노인, 이혼·별거 가구주의 증가 등이다. 이와 함께 서구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족가치관의 약화와 가족관계의 변화는 가족갈등을 야기하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가족구조 및 가구주 구성의 변화

최근 우리사회 가족구조의 두드러진 특징은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를 지적할 수 있다. 가구유형의 변화를 보면, 1990년에 부부 또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형태가 68.0%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부부와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 등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확대가족형태는 12.5%로 핵가족의 1/5 미만에 불과하였다. 또한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는 각각 9.0%와 1.5%를 보였다. 지속적인 소가족화로 가구유형은 변화를 보여서 2010년에 핵가족형태는 61.6%로 1990년에 비해 6.4%pt 감소하였고, 확대가족형태는 6.2%로 동기간 절반으로 감소하였으며, 1인가구는 23.9%로 약 2.7배 증가하였고 비혈연가구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족구조의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소가족화는 개인주의화에 따른 자녀분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증가, 만혼화 및 이혼율 증대, 저출산

10) Kathleen M. Galvin & Bernard J. Brommel(1986). *Family Communication*. Addison Wesley 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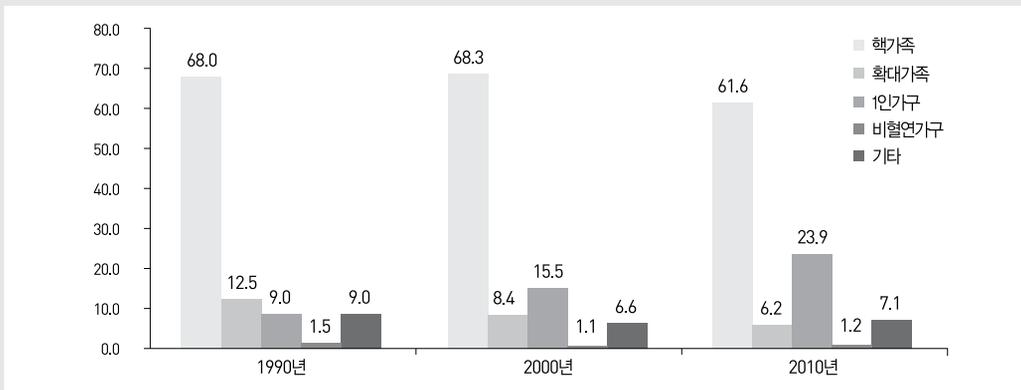
등으로 인한 1~2인 가구의 급증과 1세대 중심의 핵가족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른 하나는 가구주 구성 변화를 들 수 있다. 가구주의 성별분포는 1990년에는 남성 가구주가 84.3%, 여성가구주는 15.7%로 남성이 여성보다 5.4배 많았고, 2000년에는 각각 81.5%와 18.5%,

2010년에는 74.1%와 25.9%로 20년 간 남성가구주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비해, 여성가구주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서, 2010년 남성가구주는 여성가구주보다 2.9배로 많아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 이는 이혼·별거 및 사별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증가에서 오는 영향으로 해석된다.

그림 1. 가구유형 변화추이(199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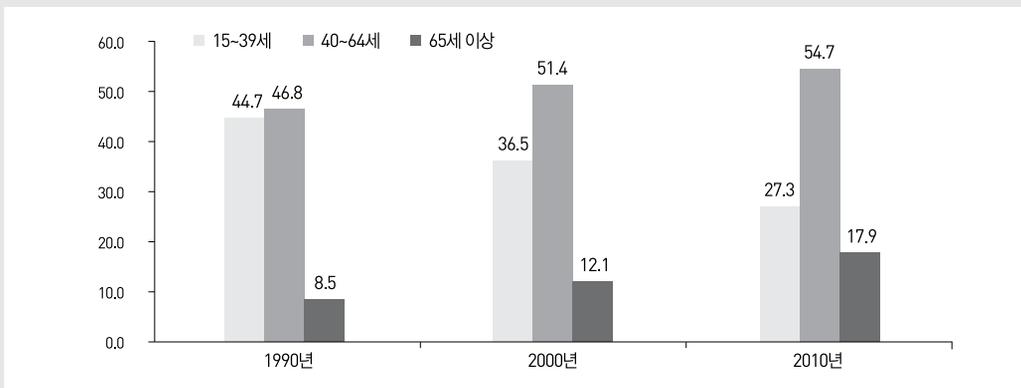
(단위: %)



자료: 1) 통계청(1990, 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그림 2.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추이(1990~2010년)

(단위: %)



자료: 1) 통계청(1990, 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의 성별분포는 혼인상태와 관련이 높다. 가구의 혼인상태별 분포를 보면 1990년 유배우는 79.6%로 다수의 분포를 보였고, 사별과 이혼은 12.0%, 미혼은 8.3%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각각 75.0%, 14.8%와 10.2%, 2010년에는 66.6%와 19.0%, 10.2%로서 20년 간 유배우 가구는 점차 감소하고 이혼·사별 및 미혼 가구의 분포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가구의 3개 집단별 연령분포를 보면 1990년에는 15~39세 연령층이 44.7%, 40~64세 연령층은 46.8%, 65세 이상은 8.5%로 중년층 이하보다 장년층이 다소 높았다. 2000년에는 각각 36.5%, 51.4%, 12.1%로 1990년보다 중년층 이하는 큰 폭으로 감소한데 비해, 장년층과 노년층은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20년간 가구의 연령구성 변화추이는 중년층 이하 감소하고 장년층과 노년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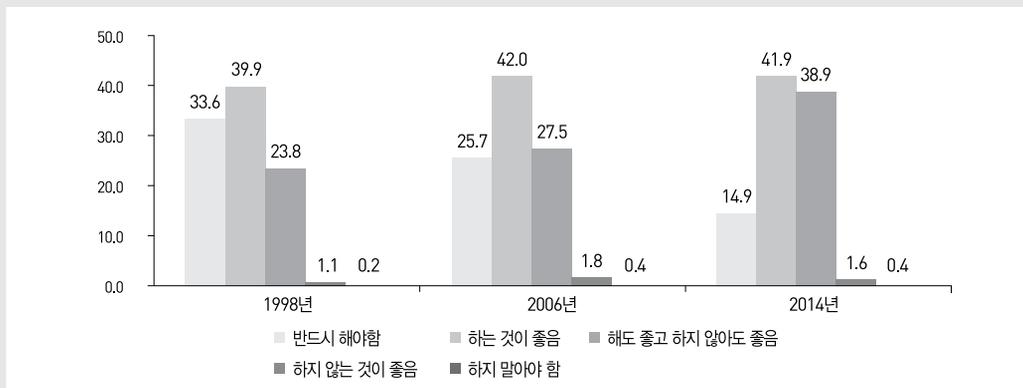
가구 구성의 변화는 성별, 혼인상태 및 연령별로 현저하게 드러난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가구의 고령화와 함께 이혼·별거로 여성 가구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만혼화 및 결혼기피로 미혼 가구주도 증가하여서 가족형성과 가족주기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1~2인가구와 노인 및 이혼가구의 증가는 돌봄기능 공백 및 부양부담으로 관계 및 기능상의 갈등을 초래하는 한편 미혼 가구주의 증가는 성인자녀의 정서 및 경제적 독립을 지연시켜 세대 간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2) 가족가치관과 태도의 변화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개인주의화, 소가족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가치관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형성과

그림 3. 결혼에 대한 태도변화 추이(1998~2014년)

(단위: %)



자료: 통계청(1998, 2006), 사회조사 결과.

표 1. 성 및 연령별 미혼율 변화추이(1990~2010년)

(단위: %)

| 구분 | | 1990년 | 2000년 | 2010년 |
|----|-----|-------|-------|-------|
| 남자 | 20대 | 10.7 | 6.0 | 7.8 |
| | 30대 | 1.1 | 1.7 | 3.7 |
| 여자 | 20대 | 6.7 | 5.3 | 6.4 |
| | 30대 | 0.5 | 0.7 | 2.0 |

자료: 1) 통계청(1990, 2000). 인구 및 주택 센서스 보고서; 2)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관련이 높은 혼인가치관을 보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1998년 73.5%에서 2014년에는 56.8%로 16년간 16.7%pt가 감소한데 비해, 중립적인 태도는 동 기간에 30% 내외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부정적인 태도도 1998년 1.3%에서 2010년 3.3%로 소폭 증가하였다.

혼인가치관은 미혼인구 비율에 잘 반영되어 있다. 초혼연령의 지속적 상승으로 미혼율은 20년간 남녀 모두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동 기간 20대는 다소 감소한데 비해, 30대는 3.4배 증가하였고, 여성도 동 기간 남성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30대는 4배 증가하여서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부부 간 성역할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부부간의 역할에 대해 가부장적인 전통적 가치관이 지배적이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함께 취업 및 가사분담 등에 대해서는 다소 양성평등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역할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면 2012년 ‘아내는 남편의 경력 쌓기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태도에 대해 찬성이 반대보다 2배 많았고,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반대가 찬성보다 다소 높았다. 이에 비해 2014년에는 전자는 반대가 찬성보다 1.6배 많았고, 후자는 찬성이 다소 높아지면서 찬성과 반대 간에 차이가 줄어들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부부 간 위계적이고 양성 불평등

표 2. 성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2012~2014년)

(단위: %, 명)

| 구분 | | 전혀 찬성하지 않음 | 별로 찬성하지 않음 | 대체로 찬성 | 전적으로 찬성 | 계(수) |
|---------------------------|-------|------------|------------|--------|---------|---------------|
| 아내는 남편의 경력 쌓기에 도움을 주어야 함 | 2012년 | 3.3 | 30.3 | 57.9 | 8.5 | 100.0(10,052) |
| | 2014년 | 18.9 | 42.2 | 28.8 | 10.1 | 100.0(983) |
|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는 가족을 돌보아야 함 | 2012년 | 7.0 | 46.3 | 41.0 | 5.7 | 100.0(10,052) |
| | 2014년 | 13.8 | 35.6 | 38.7 | 11.9 | 100.0(985) |

자료: 1)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유경 외(2014).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표 3. 가족 내 부부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2003~2009년)

(단위: %, 명)

| 구분 | ① 남편은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가사를 맡음 | | ② 남편·부인 모두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음 | | ③ 남편·부인 모두 돈을 벌며, 남편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음 | | ④ 남편·부인 모두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가사를 맡음 | | ⑤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음 | | ⑥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음 | | ⑦ 남편과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양육·가사를 맡음 | | 계(수)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 | | | | | |
| 2003년 | 38.6 | 33.6 | 0.6 | 4.2 | 18.4 | 0.7 | 2.4 | 1.4 | 100.0(9,882) | | | | | | |
| 2006년 | 29.7 | 32.2 | 0.6 | 7.4 | 24.2 | 0.7 | 3.9 | 1.3 | 100.0(8,905) | | | | | | |
| 2009년 | 40.2 | 33.4 | 0.8 | 5.9 | 10.8 | 0.6 | 2.4 | 5.8 | 100.0(9,311) | | | | | | |

자료: 1) 김승권 외(2003).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적인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점차적으로 약화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부역할에 대해 남편은 경제부양자, 부인은 양육·가사자라는 전통적인 모델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이는 맞벌이 경우나 누가 돈을 버는 것과 상관없이 전통모델을 고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남편과 부인 상관없이 집에 있는 사람이 양육·가사를 맡는다는 견해에 미미하나 소폭 증가추세를 보여서 향후 가

정 내 부부역할의 변화를 말해주며 부부역할로 인한 갈등이 예상된다.

가족변화는 부양가치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부모부양책임에 대해 최근으로 오면서 가족에서 점차 사회 및 기타에 대한 견해가 높아지면서 사회화의 경향이 높았고, 가족 중에서도 모든 자녀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능력 있는 자녀, 장남과 아들 모두 순으로 나타나서 장남 또는 아들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

표 4. 부모부양 책임자에 대한 견해 변화(1998~2014년)

(단위: %)

| 구분 | 가족 | | | | | 스스로 해결 | 사회 및 기타 | 계 |
|-------|------|------|------|-------|----------|--------|---------|-------|
| | 소계 | 장남 | 아들모두 | 아들딸모두 | 능력 있는 자녀 | | | |
| 1998년 | 89.9 | 22.4 | 7.0 | 15.0 | 45.5 | 8.1 | 2.0 | 100.0 |
| 2006년 | 63.4 | 12.4 | 5.1 | 31.8 | 14.1 | 7.8 | 28.7 | 100.0 |
| 2014년 | 31.7 | 2.0 | 1.1 | 24.1 | 4.5 | 16.6 | 51.7 | 100.0 |

자료: 통계청(1998, 2006, 2014). 사회조사결과.

다. 이와 같이 약화된 가족부양관에 비해 소자녀와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부모 부양의 부담증가는 세대 간의 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녀부양가치관은 자녀양육태도와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책임범위 등에서 잘 나타난다.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를 보면 대체로 전체와 남녀 모두 중

립적인 의견(3.5~3.7점)으로 그중에서 경제적 부담, 자녀돌봄, 그리고 일가정 양립 등의 순으로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녀에 대한 부모책임범위는 대학교육(3.5점)부터 자녀결혼(3.2점)과 그 이후(3.0점)에 대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점차 점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성별로도 유사하였다. 자녀양육

표 5.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2010년)

(단위: 점, 명)

| 구분 | | 전체 | 남자 | 여자 |
|----------|---------------------------------|---------|---------|---------|
| 자녀 양육 태도 | 자녀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 | 3.6 | 3.6 | 3.6 |
| | 자녀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3.5 | 3.5 | 3.5 |
| |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다 | 3.7 | 3.7 | 3.7 |
| (분석대상수) | | (4,754) | (2,368) | (2,386) |

주: 점수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음)~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됨.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책임 상한선에 대한 태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초혼연령 상승 및 미혼인구 증가로 현실적으로는 자녀결혼 전의 상당 기간동안 자녀양육 부담이 예상되어 가족갈등의 증폭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가치관과 태도

의 변화는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가족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짐작된다. 혼인가치관의 약화 및 미혼인구 증가로 성인자녀결혼의 지연은 상당기간 정서적·경제적으로 부양부담을 발생하여 부모와 성인자녀 간 갈등의 증폭이 예상된다. 최근

표 6. 자녀에 대한 부모책임 태도(2010년)

(단위: 점, 명)

| 구분 | | 전체 | 남자 | 여자 |
|-----------------|------------------------------------|---------|---------|---------|
| 자녀에 대한 부모 책임 태도 |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 3.5 | 3.5 | 3.5 |
| | 부모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 3.2 | 3.2 | 3.2 |
| | 부모는 필요하다면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다 | 3.0 | 3.0 | 3.0 |
| (분석대상수) | | (4,754) | (2,368) | (2,386) |

주: 점수범위는 1점(전혀 그렇지 않음)~5점(매우 그렇다)로 구성됨.
자료: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으로 오면서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부부 간 성역할관은 위계적·양성불평등적인 부분이 상당히 잔존하여 일·가정양립의 불균형적 역할수행 등 가정 내 부부역할로 인한 갈등이 예상된다. 부모부양관은 또한 장남·아들중심의 가부장적 부양관이 상당히 악화되는데 비해 사회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가족부양의 사회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부담은 점진적으로 과중되어 부모와 성인 자녀 간에, 형제자매 간에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4. 가족갈등 발생 및 대응

1) 가족갈등 발생수준

2014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1,000명의 응답자 중에서 가정 내에서 갈등을 경험한 비율

은 32.5%로 1/3 정도가 가족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 가구형태별로는 3세대가구가 가족갈등 경험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가구, 부부 또는 한부모와 미혼자녀, 1인 가구, 기타 가구 순으로 가족 간에 갈등 경험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여기에 1인가구를 포함한 이유는 최근 분거로 인한 1인가족의 분포가 높고, 원가족과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가구형태별 갈등경험 수준은 전체 평균보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와 부부가구,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가족갈등 경험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서 부부 및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이해 및 의사소통 부족 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구주 성별로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보다 가족갈등 경험이 다소 많았으나 차이가 거의 없었고, 가구주 연령별 가족갈등 경험비율은 18.0~43.0%로 50대를 제외하면 대체로 연령이 많아질수록 가족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높아지는

표 7. 가구형태별 최근 1년간 가족갈등 경험비율

(단위: %, 명)

| 구분 |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 | 계(수) |
|------------|---------------|---------------|--------------|
| 전체 | 32.5 | 67.5 | 100.0(1,000) |
| 1인 가구 | 18.6 | 81.4 | 100.0(102) |
| 부부가구 | 36.9 | 63.1 | 100.0(168) |
| 부부+미혼자녀가구 | 33.9 | 66.1 | 100.0(613) |
| 한부모+미혼자녀가구 | 23.5 | 76.5 | 100.0(17) |
| 3세대 가구 | 38.0 | 62.0 | 100.0(71) |
| 기타 | 17.2 | 82.8 | 100.0(29) |

자료: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11) 조사에서 사용한 가족갈등 경험측정은 최근 1년간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에서 오는 갈등을 경험하였는지를 '예', '아니오'로 측정함.

경향을 보였다. 가구주 연령은 가족주기와 관련이 높으며 중년층 이하보다 장년층 이상에서 가족갈등이 높은 것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족확대기와 자녀를 출가시키고 부부만이 남는 가족축소기 과정에서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요인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장년

층 이상에서 50대에 일시적으로 가족갈등이 감소하는 것은 자녀가 학령기를 벗어나서 정서 및 경제적으로 자립하면서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부갈등과 세대 간 갈등이 다소 줄어드는 데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표 8.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 최근 1년간 가족갈등 경험비율

(단위: %, 명)

| 구분 |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다 | 계(수) |
|--------|---------------|---------------|------------|
| 전체 | 31.9 | 68.1 | 100.0(474) |
| 가구주 성 | | | |
| 남성 | 31.5 | 68.5 | 100.0(387) |
| 여성 | 33.3 | 66.7 | 100.0(87) |
| 가구주 연령 | | | |
| 19~39세 | 18.0 | 82.0 | 100.0(139) |
| 40~49세 | 37.7 | 62.3 | 100.0(138) |
| 50~59세 | 33.9 | 66.1 | 100.0(118) |
| 60~69세 | 43.0 | 57.0 | 100.0(79) |

자료: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2) 가족갈등유형

가족갈등유형의 분석대상자는 조사대상자 1,000명 중 가족갈등을 경험한 325명이다. 2014년 조사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은 가족 내 세대갈등이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20.6%로 많았으며, 이어서 부부갈등이 19.4%, 가족기능상에서 오는 갈등 16.0%, 기타 6.5%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세대갈등 중에서는 부모와 자녀갈등이 28.3%로 많았고, 고부 및 장서 간 갈등도 9.2%로 적지 않았다. 또한 형제자매 간의 갈등 중 친형

제자매 간에 갈등이 16.3%로 많았고, 동서 간 갈등은 4.3%로 적은 편이었다. 가족기능상에서 오는 갈등 중에서는 가족돌봄 및 상속갈등은 9.2%이었고, 일가족 갈등은 6.8%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주로 부모 자녀 간의 세대갈등, 부부갈등과 부모부양과 상속 등으로 인한 형제자매 갈등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 가구는 형제자매 갈등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모와 자녀 갈등과 일가족 갈등이 높은 편이었다. 부부가구는 부부갈등이 높았고, 형제자매와 동서 간에 갈등도 높은 편이었으며 가족

표 9. 가구형태별 최근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

(단위: %, 명)

| 구분 | 가족관계 갈등 | | | | | | 가족기능 갈등 | | 기타 | 계(수) |
|------------|----------|-----------------|-----------------|-------------------|----------------|-----------|---------------------------|-----------|------|------------|
| | 부부 갈등 | 가족 내 세대갈등 | | | 형제자매 갈등 | | 가족 돌봄 및 상속 갈등 | 일가족 갈등 | | |
| | | 부모와 자녀 갈등 | 고부및 장서 갈등 | 조부모와 손자녀 갈등 | 형제 자매 갈등 | 동서간 갈등 | | | | |
| 전체 | 19.4 | 28.3 | 9.2 | - | 16.3 | 4.3 | 9.2 | 6.8 | 6.5 | 100.0(325) |
| 1인 가구 | - | 21.1 | - | - | 26.3 | - | 10.5 | 21.1 | 21.1 | 100.0(19) |
| 부부가구 | 29.0 | 17.7 | 3.2 | - | 17.7 | 8.1 | 12.9 | 1.6 | 9.7 | 100.0(62) |
| 부부+미혼 자녀가구 | 19.8 | 31.6 | 11.3 | - | 14.2 | 4.2 | 8.0 | 5.7 | 5.2 | 100.0(212) |
| 3세대 가구 | 7.4 | 33.3 | 14.8 | - | 18.5 | - | 11.1 | 14.8 | - | 100.0(27) |
| 기타 | 20.0 | 20.0 | - | - | 40.0 | - | - | 20.0 | - | 100.0(5) |

주: 가구형태에서 부부+미혼자녀가구에는 한부모+미혼자녀가구 포함됨.
 자료: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돌봄 및 상속갈등도 타 가구보다 높았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부부갈등과 가족 내 세대갈등이 62.7%로 과반수를 초과하였고, 3세대가

구는 가족 내 세대갈등이 48.1%로 거의 과반수를 보였으며, 형제자매 간 갈등과 가족돌봄 및 상속갈등, 일가족 갈등도 높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가구

표 10.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 최근 1년간 응답자가 경험한 가족갈등 유형

(단위: %, 명)

| 구분 | 가족관계 갈등 | | | | | | 가족기능 갈등 | | 기타 | 계(수) |
|--------|----------|-----------------|-----------------|-------------------|----------------|-----------|---------------------------|-----------|------|------------|
| | 부부 갈등 | 가족 내 세대갈등 | | | 형제자매 갈등 | | 가족 돌봄 및 상속 갈등 | 일가족 갈등 | | |
| | | 부모와 자녀 갈등 | 고부및 장서 갈등 | 조부모와 손자녀 갈등 | 형제 자매 갈등 | 동서간 갈등 | | | | |
| 전체 | 23.8 | 17.9 | 6.0 | - | 23.2 | 3.3 | 7.9 | 10.6 | 7.3 | 100.0(151) |
| 가구주 성 | | | | | | | | | | |
| 남성 | 24.6 | 16.4 | 7.4 | - | 25.4 | 2.5 | 7.4 | 10.7 | 5.7 | 100.0(122) |
| 여성 | 20.7 | 24.1 | - | - | 13.8 | 6.9 | 10.3 | 10.3 | 13.8 | 100.0(29) |
| 가구주 연령 | | | | | | | | | | |
| 19~39세 | 24.0 | 28.0 | 12.0 | - | 16.0 | - | - | 8.0 | 12.0 | 100.0(25) |
| 40~49세 | 26.9 | 15.4 | 7.7 | - | 17.3 | 3.8 | 9.6 | 15.4 | 3.8 | 100.0(52) |
| 50~59세 | 22.5 | 7.5 | 5.0 | - | 27.5 | 7.5 | 10.0 | 10.0 | 10.0 | 100.0(40) |
| 60~69세 | 20.6 | 26.5 | - | - | 32.4 | - | 8.8 | 5.9 | 5.9 | 100.0(34) |

자료: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형태별로 갈등유형은 차이를 보이며 이는 가구형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는 여성에 비해 부부갈등과 친형제자매 간 갈등, 그리고 일가족갈등이 다소 높았고, 여성인 경우는 남성에 비해 부모와 자녀 간과 동서 간 갈등, 그리고 가족돌봄에서 오는 갈등이 높은 편이었다. 이와 같이 성별 갈등유형의 차이는 성별 간에 역할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가구주 연령이 39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타 연령층에 비해 부모와 자녀 간 갈등과 고부 및 장서 간 갈등 등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많았으며, 40대는 부부갈등과 일가족 갈등이 많았다. 50대는 친형제자매와 동서 간 갈등이 많았고, 가족돌봄과 상속갈등도 다소 많았다. 60대는 부모와 자녀 간과 친형제자매 간에 갈등이 많은 편이었다. 가구주의 연령별 갈등유형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족주기별 가족갈등 발생요인이 갈등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가족갈등 대처방식

가족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처방식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가 46.2%로 거의 과반수에 이르며, 그냥 참는다고도 34.8%로 1/3에 해당된다. 이에 비해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는 10.8%, 폭력적으로 해결한다는 1% 미만으로 나타났고, 주위사람 또는 전문가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5.9%로 미미하였다. 이는 가족갈등을 경험한 대다수 응답자의 경우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으며, 주위사람 및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어서 가정 내에서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는 특성을 보였다.

가구형태별로는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1인가구는 타 가구에 비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고,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는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와 전

표 11. 가구형태별 가족갈등의 대처방식

(단위: %, 명)

| 구분 | 그냥 참는다 |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 폭력적으로 해결한다 |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기타 | 계(수) |
|-----------|--------|--------------|--------------------|------------|------------------|-----------------------|------|------------|
| 전체 | 34.8 | 46.2 | 10.8 | 0.3 | 2.8 | 3.1 | 2.2 | 100.0(325) |
| 1인 가구 | 26.3 | 52.6 | 5.3 | - | 5.3 | - | 10.5 | 100.0(19) |
| 부부가구 | 50.0 | 43.5 | 1.6 | - | 3.2 | 1.6 | - | 100.0(62) |
| 부부+미혼자녀가구 | 30.7 | 46.7 | 14.2 | 0.5 | 2.4 | 3.8 | 1.9 | 100.0(212) |
| 3세대 가구 | 37.0 | 44.4 | 7.4 | - | 3.7 | 3.7 | 3.7 | 100.0(27) |
| 기타 | 40.0 | 40.0 | 20.0 | - | - | - | - | 100.0(5) |

주: 가구형태에서 부부+미혼자녀가구에는 한부모+미혼자녀가구도 포함됨.
 자료: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는 여성보다 참거나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높은 데 비해, 여성은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다소 많았다.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대체로 40대 이

하에 비해 50대 이상에서 그냥 참거나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높은 편이었으며, 40~50대는 타 연령층에 비해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았고, 60대는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연령별로 가족갈등의 대처방식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12.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 가족갈등 대처방식

(단위: %, 명)

| 구분 | 그냥 참는다 |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 |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 폭력적으로 해결한다 |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기타 | 계(수) |
|--------|--------|--------------|--------------------|------------|------------------|-----------------------|-----|------------|
| 전체 | 32.5 | 50.3 | 7.9 | - | 3.3 | 2.6 | 3.3 | 100.0(151) |
| 가구주 성 | | | | | | | | |
| 남성 | 31.1 | 54.9 | 7.4 | - | 4.1 | - | 2.5 | 100.0(122) |
| 여성 | 37.9 | 31.0 | 10.3 | - | - | 13.8 | 6.9 | 100.0(29) |
| 가구주 연령 | | | | | | | | |
| 19~39세 | 24.0 | 64.0 | 8.0 | - | 4.0 | - | - | 100.0(25) |
| 40~49세 | 15.4 | 57.7 | 9.6 | - | 3.8 | 5.8 | 7.7 | 100.0(52) |
| 50~59세 | 50.0 | 37.5 | 12.5 | - | - | - | - | 100.0(40) |
| 60~69세 | 44.1 | 44.1 | - | - | 5.9 | 2.9 | 2.9 | 100.0(34) |

자료: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4)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변화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는 소통단절로 부부나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고,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들어 드는 경우는 33.8%로 많았으며, 갈등으로 인한 외박 및 분가 등을 포함한 기타는 16.0%이었고, 갈등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의절하는 비율도 9.8%로 적지 않았다. 이외에도 1% 미만이나 같

등으로 가족원이 가출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는 가족갈등으로 인해 가족 간에 소통단절부터 의절까지 심각한 양상을 보여서 가족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구형태별로는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특히 1인가구는 갈등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간에 왕래가 없고 의절한다는 비율이 15.8%로 전체보다 높았으며, 부부가구는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들어 드는 경우

표 13. 가구형태별 최근 1년간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

(단위: %, 명)

| 구분 |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듦 | 소통단절로 부부나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짐 | 갈등으로 가족원이 가출함 | 갈등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 간에 왕래가 없고 의절함 | 기타 | 계(수) |
|-----------|---------------------|--------------------------------------|---------------------|--|------|------------|
| 전체 | 33.8 | 39.4 | 0.9 | 9.8 | 16.0 | 100.0(325) |
| 1인 가구 | 26.3 | 31.6 | - | 15.8 | 26.3 | 100.0(19) |
| 부부가구 | 35.5 | 30.6 | - | 17.7 | 16.1 | 100.0(62) |
| 부부+미혼자녀가구 | 31.1 | 46.2 | 1.4 | 6.6 | 14.6 | 100.0(212) |
| 3세대 가구 | 59.3 | 11.1 | - | 11.1 | 18.5 | 100.0(27) |
| 기타 | 20.0 | 40.0 | - | 20.0 | 20.0 | 100.0(5) |

주: 1) 가구형태에서 부부+미혼자녀가구에는 한부모+미혼자녀가구 포함됨.

2) 기타에는 갈등으로 인한 외박, 분가 등이 포함됨.

자료: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와 부모 및 형제자매 간에 왕래가 없고 의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부와 미혼자녀가구는 소통단절로 부부나 가족관계가 소원해 지는 경우가, 3세대 가구는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는 가구유형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그중에서 1인가구와 부부가구는 가족 간에 의절까지 이르는 심각한 결과를 보였다.

표 14.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 최근 1년간 가족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

(단위: %, 명)

| 구분 |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듦 | 소통단절로 부부나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짐 | 갈등으로 가족원이 가출함 | 갈등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 간에 왕래가 없고 의절함 | 기타 | 계(수) |
|--------|---------------------|--------------------------------------|---------------------|--|------|------------|
| 전체 | 35.1 | 35.1 | - | 11.3 | 18.5 | 100.0(151) |
| 가구주 성 | | | | | | |
| 남성 | 36.9 | 34.4 | - | 10.7 | 18.0 | 100.0(122) |
| 여성 | 27.6 | 37.9 | - | 13.8 | 20.7 | 100.0(29) |
| 가구주 연령 | | | | | | |
| 19~39세 | 60.0 | 20.0 | - | 4.0 | 16.0 | 100.0(25) |
| 40~49세 | 30.8 | 36.5 | - | 9.6 | 23.1 | 100.0(52) |
| 50~59세 | 25.0 | 42.5 | - | 10.0 | 22.5 | 100.0(40) |
| 60~69세 | 35.3 | 35.3 | - | 20.6 | 8.8 | 100.0(34) |

자료: 「부부 및 형제자매, 일가족 갈등에 대한 태도 및 실태조사」 전화 조사결과임.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는 여성보다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여성은 소통 단절로 가족관계가 소원해 지거나 의절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가족갈등으로 상당히 부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19~30세 이하는 타 연령층에 비해 가족 간에 대화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고, 40세 이상은 소통단절로 가족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60대는 왕래가 없고 의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갈등으로 부정적인 변화의 단계가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고연령층의 경우 부양 및 상속으로 인해 성인자녀와의 세대갈등이 집착되며 다른 갈등에 비해 극단적인 결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5. 나가며

최근 가족가치관의 약화, 급속한 가족변화로 자녀양육 및 가족부양 공백 등 가족복지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 팽배와 전통적 성역할 혼재, 세대 간 소통단절 등으로 가족갈등이 증가하며, 특히 노부모 부양과 상속문제 등으로 형제자매 간, 고부와 장서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일·가정 양립, 성인자녀의 만혼화에 따른 부모의존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증가추세이다. 우리사회의 정서상 가족갈등은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가족갈등이 가족해체로 이어지고 해체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는 국가

및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공적인 영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가족갈등에 대응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제고하고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 간 관계 개선을 위해 의사소통강화 및 공유시간 확대, 양성평등적 인식확산과 제도개선 등 다각적으로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 결과, 가족갈등을 경험한 응답자는 1/3 정도이었고, 그중에서 부부, 형제자매 및 가족 내 세대 등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비교적 많았는데, 이는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와 이해 및 의사소통 부족 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세대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 및 의사소통 강화, 공유하는 시간 확대 등의 가족차원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근로시간이 두 번째로 길고, 방과 후에는 입시준비나 취업준비가 우선시되는 사회문화적 토양에서 실시되는 가족문화 사업이나 밥상머리교육은 확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은 직장과 지역사회 단위에서 단편적인 인식개선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제도적인 부분과도 맞물린다. 이와 함께 가족갈등 원인 중 비민주적 젠더관계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본고 조사결과에서도 높은 갈등유형으로 나타난 부부 및 형제자매 등의 가족관계 갈등과 노인부양 및 상속 등의 가족기능 갈등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불평등한 젠더관계나 젠더 간 기대의 불일치에서 기인되고 있음이 짐작된다. 최근 호주제 폐지, 남녀 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며 제도적으로 양성불평등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실

제 가족 내 성별 역할 및 상속문화에서는 양성불평등적인 요인이 잔재하여 사회적 양가성이 발견된다. 이러한 사회적 양가성은 단지 제도나 정책의 변화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양성평등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양성평등적 인식 확산과 함께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가족과 사회, 국가 등 다차원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인식개선과 함께 양성평등적인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에 고착되어 있는 양성불평등적인 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세대 간 유대강화를 위해 기존 위계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민주적·합리적인 새로운 관계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고학력화 및 만혼화 등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간 관계의 질은 가족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된다. 그럼에도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교육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하루의 일과 중에서 여가시간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해도 주로 학교교육이나 시험 등에 제한되고 있다. 이는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편향되게 만들어 결국 관계상의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중요한 영향변수로 작용한다. 본고 결과,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은 대체로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높

았으나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부모와 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부족한 데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처방식도 대화 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발견되어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가능한 많은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부모자녀 간에 원만하고 지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부모와 자녀 간 이해증진 프로그램과 가족단위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여가 및 체험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부모-자녀 간 친밀감을 제고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는 상호작용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 간 응집력 및 탄력도 제고를 위해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 결과, 가족 내 세대갈등은 1/3에 근접하였고,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의 경우 대처방식은 대체로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높았으나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같이 세대 간 갈등은 전통적 확대가족과는 달리 고립화된 핵가족(isolated nuclear families)에서는 가족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기제가 없어 감정적 표출이 쉽게 되며, 이로 인해 가정폭력까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갈등으로 인한 결과는 가족의 응집력과 탄력을 약화시키므로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실천과제로 가족상담 및 치료서비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응집

력 및 탄력은 가족관계가 양호할 때 높으므로 가족 응집력 제고를 위해 가족관계향상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가족단위의 교육 및 전문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가족프로그램 및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치료 등 전문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¹²⁾. 가족기능강화를 위해 가족지지를 제고하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족 간에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훈련, 의견을 지지하는 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지지 능력을 제고한다.

넷째, 부모부양 및 상속갈등을 초래하는 전통적인 가족문화에서 탈피하여 민주적·양성평등적인 가족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양 및 명절·제사, 그리고 상속관습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가치관 및 문화와 관련이 높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부양 및 상속문화는 장남 및 아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되고 자녀규모도 점차 축소되어 남아선호에 대한 개념이 무의미해지고 제도적으로도 상속법이 양성 평등적으로 개정되면서 전통적인 가치관·문화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혼란과 충돌을 야기하며 이는 형제자매 간의 갈등 원인으로 작용한다. 선행연구결과, 형제자매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상당부분은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를 유지계승하려는 경향과 남아선호사상에 바탕을 둔 아들 위주의 재산상속 관행, 그리고 부모부양 등에서 기인한다¹³⁾. 이는 본고 결과에서도 잘 보여준다. 형제자매 갈등은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여서 친형제자매 간 갈등은 16.3%, 동서 간 갈등은 4.3%로 친형제자매 간 갈등이 동서보다 다소 높았고 가족돌봄 및 상속갈등도 9.2%로 적지 않았다. 이는 친형제자매 간에 노부모 부양 및 상속으로 갈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집안명절 및 제사 행사 등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양성 평등적인 가족문화 및 관습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 내 부양 및 돌봄의 불평등적 구조적 개선을 위해 노부모 돌봄을 비롯한 가족 내 사안에 대해 형제자매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책임을 분담하며,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장남가족에게만 부양의 의무를 강요하기 보다는 애정에 기반한 형제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 모델을 개발하고 홍보되어야 할 것이다¹⁴⁾. ■

12) 김유경·진미정·송유진·김가희(2013).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 이삼식 외(2011). 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사회통합위원회.

14) 유희정(2013).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부모를 돌보는 형제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40), pp.63-91.